

보도시점

2023. 7. 3.(월) 14:00

배포 2023. 7. 3.(월)

사회복지시설에 충전시설 240기와 전기차 120대 지원

- 환경부, 현대자동차그룹, 사랑의열매, 월드비전 업무협약 체결
- 제1호 충전시설을 대전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제공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3일 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차와 충전시설을 보급하는 ‘이쉐어(E-Share)’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이날 업무협약식에 이어 ‘이쉐어’ 사업의 첫 결실인 제1호 충전시설 개소식과 전기차 전달식을 진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취약계층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으며, 3년간 매년 40곳(총 120곳)의 개별 사회복지시설에 충전기 2기(총 240기)와 전기차 1대(총 120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협약기관별 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부는 사회복지시설에 제공되는 전기차 구매를 보조하고, 전기차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충전시설을 제공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전기차 구매비용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 기부금을 사랑의열매와 월드비전에 기탁한다. 사랑의열매와 월드비전은 기탁받은 기부금으로 전기차를 구매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 전기차 보급 증가 추세*와 함께 보급 혜택 사각지대 해소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20) 46,713대 → (’21) 100,427대 → (’22) 164,486대, 누적 약 46만 5천대

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과 전기차 충전시설 123만기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전기차 보급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면서 취약계층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으로 환경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업무협약식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변화정책관실 대기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담당자	사무관	정윤희 (044-201-6882)

□ 추진 배경

-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23.5월 기준 누적 보급대수는 약 46만5천대

* ('20) 46,713대 → ('21) 100,427대 → ('22) 164,486대

-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한정된 예산, 충전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전기차 이용이 저조

- 이에, 환경부는 현대차그룹, 복지기관(사랑의열매, 월드비전)과 공동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충전시설, 전기차를 지원하는 'E-share' 사업 추진

☞ 첫 번째 사업으로 대전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충전시설(급속 1기, 완속 1기) 개소 및 전기차(1대) 전달

※ 향후 3년간 120곳의 사회복지시설에 240기의 충전기(급속 120기, 완속 120기)와 120대의 전기차 보급 예정

□ 행사 개요

- (행사명) 전기차와 충전소 지원을 위한 'E-share' 업무협약식
- (時/所) '23.7.3(월), 14:10~14:50/ 대전 관저종합사회복지관
- (협약기관) 환경부, 현대차그룹, 사랑의열매, 월드비전
- (주요일정) ①E-share 업무협약, ②전기차·충전시설 전달식

【 협약 주요내용 】

- (환경부) 사회복지시설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및 해당 시설 주변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관리
- (현대차그룹) 사회복지사업 기부금을 사랑의열매, 월드비전에 기탁
- (사랑의열매, 월드비전)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발굴, 기탁받은 기부금으로 전기차를 구매하여 해당 시설에 제공